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문재인 대통령 서면 축하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열려 무척 아쉬움이 컸는데, 지난 1년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진 힘으로 오늘 ‘통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박람회를 열게 된 것도 매우 뜻깊습니다. 광주의 9개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은 방역비용을 분담하여 지역아동센터 300여 곳을 방역했고, ‘자란다’와 ‘놀담’은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긴급 무료돌봄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천으로 사회 혁신과 사회적가치의 소중함이 더욱 빛났습니다.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박람회를 준비해주신 사회적경제인들과 이용섭 광주시장님,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사회적경제 발전 공로로 수상하시는 송병화 미래농촌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인권신장과 환경보전, 고용과 복지 문제를 해결해왔고, ESG가 우리 경제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가치는 더욱 따뜻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사회적경제인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나눔의 농부, 전우익 선생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나가는 빛의 길’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함께 잘사는 재미’가 널리 퍼지고,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